

고일지의 생존연대는 케플러와 거의 맞먹는다. 그런데 이 글에서 쓰여진 공제격치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과학 혹은 천체학에 대한 고일지의 지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늘의 운동학과 땅의 운동학이 아직 통합되지 못했던 시대에서, 공제의 영역을 달 아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땅 근처의 하늘 즉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 같다. 물론 서양에서도 고일지의 생존대가 한참 지난 뉴턴에 와서야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합쳐 지기는 하지만, 갈릴레이의 지상운동론조차 언급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 운동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의 존재양식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인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의 의문은 동서고래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이러한 관심과 항상 같이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힘의 담지자 혹은 매개자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작용자(operator)라고 말한다. 그런데 서양 전통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듯이 힘이 미치는 대상과 작용자는 항상 대자적이였다. 반면에 동양일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 동양에서는 작용자와 대상이 함께 붙어 있다는 인상이었다. 이 두 차이를 정확히 인식(혹은 체험)해야만 기에 대한 이해가 올바를 것 같다.

역시 글쓴이의 주제도 주로 기에 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글쓴이가 말했듯이 고일지의 관심 혹은 그와 같은 흐름을 타는 실학의 몇몇 경향들이 형이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형이상같은 전통의 기 개념과 서학서에 나오는 관측과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 개념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런데 글쓴이처럼 그 차이가 윤리적 관심과 객관적 관심의 차이에서 보다는 오히려 대상과 작용의 분리인가 아니면 일체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더 서양 과학언어 번역에 대한 해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시발점과 객관적 시발점의 엄연한 차이를 말해 놓고 보면 실제로 그 둘 사이의 대화를 허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와 객관의 차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기 보다는 서학서에서 기라는 말을 통해서 지시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공제격치를 물론 읽어보지 않았지만 고일지가 4행의 하나라고 말한 기는 간단히 말해서 요즘 말하는 공기 혹은 대기를 지시한다고 본다. 그 당시 중국어를 어느정도 습득한 고일지가 한문으로 쓴 것은 그가 떠올린 지시체를 먼저 옆두에 두고 중국어로 가장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이지, 의미 대 의미로 번역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서양 과학저술의 번역은 더욱 그렇다.(의미 대 의미의 번역은 사전이 생긴 후에나 가능하다.)

이후 조선의 실학자들이 5행 대신에 4행을 이야기했거나 혹은 5材라고 했거나 관계없이, 그들이 기의 개념을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잡히지 않는 물질 기 보다는 잡힐 수 있는 물질 기에 관심을 처음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당시의 실학자들을 높이 사야 한다고 본다.

기가 물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뜻이 다양하다. 앞서 말했듯이 작용을 제외한 대상만을 옆두에 둔 서양식의 의미가 있고, 작용과 대상이 일체된 의미의 물질로서의 기가 있을 수 있다. 그 의미의 차이에서 당시의 실학자들을 본다면 그들의 과학적 수준은 가히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전통철학의 줄기에서 보지 말고 철저한 경험학에서 본

다면, 실학은 한국철학사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학사에 중요한 전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다. 요즘 들어 기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설명이나 이야기가 많다. (1)이 이론 논쟁이나 주기론에서 말하는 기가 당연히 주류를 이루어 왔다. (2)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도 있고, 도교 경전 계열의 기도 있다. (3)그리고 단순한 자연물인 대상 차원의 물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다루는 기이거나 기공과 같은 차원에서 말하는 기인 것 같다. (2)의 분위기는 (1)에서 말하는 기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너무 쉽게 판단한다. 그리고 (3)에서 말하는 기는 기의 의미를 너무 물질화시켰다고 보면서 기는 그런 물질 기보다 좀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실학자들의 기 이해수준을 아주 낮추어 보게 된다. 왜냐하면 실학자들의 기 이해는 관측과 시험대상이 될 수있는 물질로서의 기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아주 위험하다고 본다. (1), (2)와 (3)은 같은 하나의 다양한 해석가 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달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듯이 위 내용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3)의 생각을 낮추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3)의 입장에서 나온 우리의 일상언어가 온통 우리 주변의 생활언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 전기 자기, 기상, 기후 등 이 논평 글을 쓰려고 기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를 사전에서 찾다가 그만 두었다. 너무 많아서이다. 그 중의 많은 단어들은 (3)을 낮추어 보는 이유가 되는 기의 경험적 물질을 지시하는 단어다. 이미 기와 연관된 과학용어는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거나 중국사람이 번역을 했거나 관계없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용해되어 들어와 있다. 오늘날 서구 교육을 받은 우리들에게 (3)의 생각이 유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서구 선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의 실학자들에게 전통의 시각에서 벗어나 (3)의 생각을 가졌던 일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5행을 5材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실학자들에 대하여 서구의 과학적 평가를 쉽게 내리거나, 그 깊은 철학적 뜻이 담겨져 있는 5행론을 단순하게 물질적 5材라고 본 실학자의 생각을 무식의 소치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 때의 역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로 생각된다. <끝>